



NEWS LETTER

2019년 11월 11일 Vol. 356

신경과 김동억 교수 / KIST 김광명 박사 공동연구팀, 줄기세포 추적 고감도 복합영상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명 박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뇌졸중 유발 뇌에 이식한 줄기세포의 생체상 변화를 고감도 복합영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형광+MR 영상기술은 표지자에 의한 세포 독성과 이상증식 부작용이 적고, 줄기세포의 이동과 분포에 대한 추적 관찰이 장기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뇌졸중을 포함한 다양한 뇌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및 효능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연구실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나노과학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ACS Nano (IF: 13.9) 최신호에 발표됐다.

이번 논문 발표를 통해 김동억 교수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IF 10점 이상 주저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 BRIC-한빛사에 등록됐다.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유공자 표창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지난 1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을 한 오상우 교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고령 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대처를 위해 지역 내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오상우 교수는 스마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영양관리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0 세대 규모의 단지를 통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년 2차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2차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자체조사 위원들은 전체 515개 부분 경영진 서류 검토와 ▲의약품 관리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 관리 ▲감염관리, 질 향상 및 환자안전보장활동(시스템 추적조사 : ST, System Tracer)등 총 7개 분야의 현장 개별 환자 추적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 실시결과 지난해 3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 이후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지난해 의료기관 인증 평가 후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전했다.

투병·간병생활 담긴 ‘치유&사랑’ 감동 후기 공모전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투병·간병 생활하는 동안 따뜻했던 경험이나 힘든 병고를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감동후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감동 후기 공모전은 ‘치유&사랑’을 주제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기 위해 열린다. 공모내용은 투병·간병 생활 중 힘들었던 사연과 경험, 힘든 병고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삶의 이야기,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는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우 및 가족(지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심사를 통해 동국상(1명 100만 원), 치유상(1명 50만 원), 사랑상(2명 30만 원), 감동상(6명 20만 원) 등 10명에게 상금과 함께 동국대학교의료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내년 1월 6일 동국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